

찾아가는 의회 발로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

2023년 제18호

동대문의회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SEOUL METROPOLITAN CITY DONGDAEMUN-GU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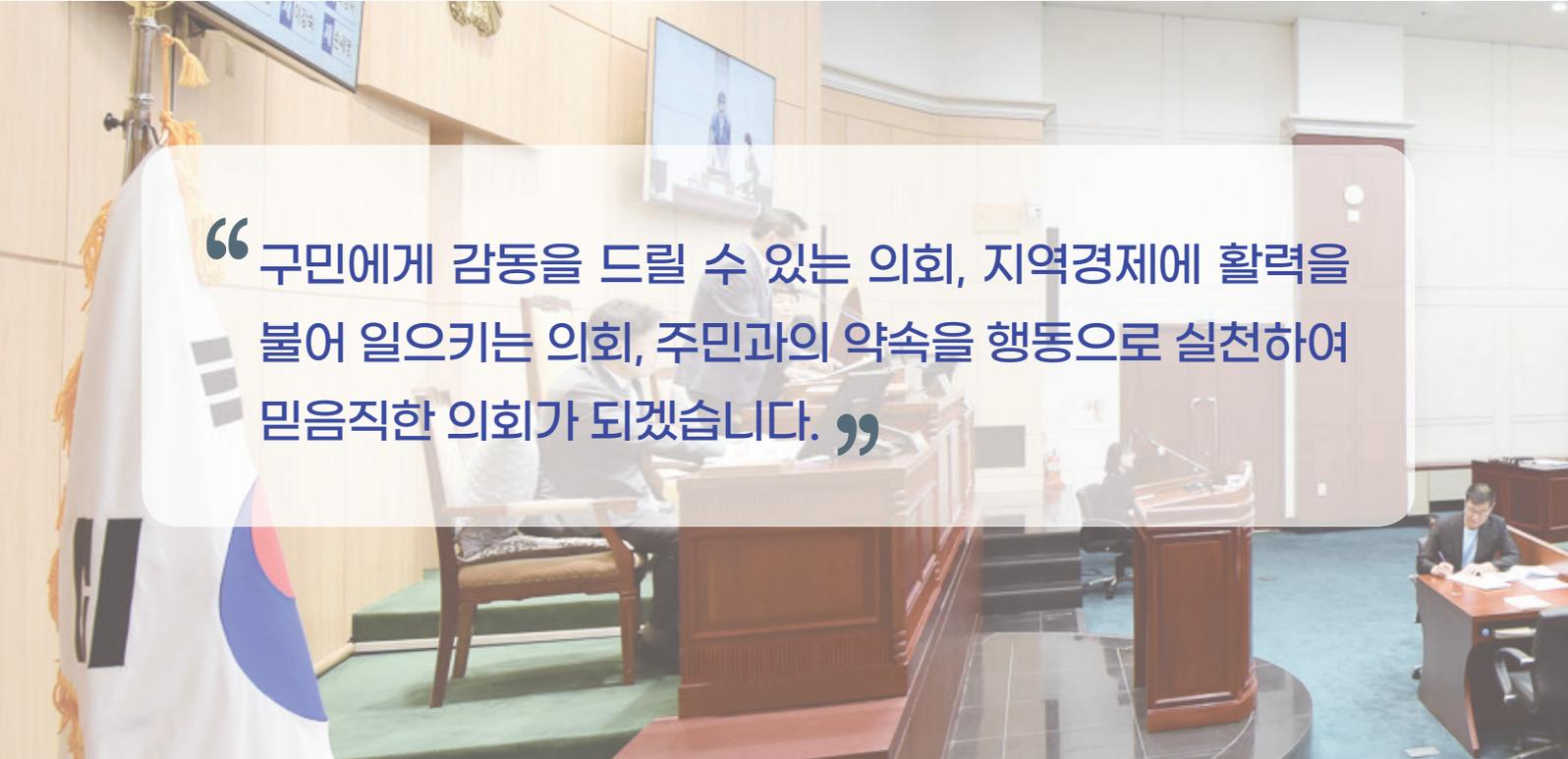


구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의회,
생활 현장중심의 발로뛰는 의원,
대화와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정



CONTENTS

- 04 발간사
- 06 의회구성
- 08 의정활동 현황
- 09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 25 규정질문
- 49 5분 발언
- 78 상임위원회 활동
- 84 특별위원회 활동
- 85 의정갤러리
- 89 제9대 전반기 연구모임 활동
- 92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구민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의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의회, 주민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믿음직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동대문의회보 제18호’에는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의 지난 1년여 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역사와 문화의 보고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대문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언제나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민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믿음직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수도세 인상 등으로 민생 경제의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위기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화 시켜내는 지역 일꾼들의 노력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희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 희망을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동대문구의회가 주민들을 대변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대문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동대문구의회 의장 **이태인**

의회구성

9대 의장단

의 장



이 태 인
(답십리2동, 장안1·2동)



부 의 장



정 성 영
(전농1·2동, 답십리1동)

9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 강 숙
(비례대표)

부위원장



정 서 윤
(답십리2동, 장안1·2동)

부위원장



성 해 란
(비례대표)

위 원



김 용 호
(전농1·2동, 답십리1동)

위 원



노 연 우
(답십리2동, 장안1·2동)

위 원



안 태 민
(답십리2동, 장안1·2동)

위 원



이 규 서
(답십리2동, 장안1·2동)

9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손세영
(제기동, 청량리동)

부위원장



김용호
(전농1·2동, 답십리1동)

부위원장



이규서
(답십리2동, 장안1·2동)

위원



정성영
(전농1·2동, 답십리1동)

위원



최영숙
(용신동)

위원



박남규
(회기, 휘경1·2동)

위원



김세종
(회기, 휘경1·2동)

위원



정서윤
(답십리2동, 장안1·2동)

위원



성해란
(비례대표)

9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지엽
(제기동, 청량리동)

부위원장



노연우
(답십리2동, 장안1·2동)

부위원장



안태민
(답십리2동, 장안1·2동)

위원



이강숙
(비례대표)

위원



김창규
(이문1·2동)

위원



김학두
(이문1·2동)

위원



서정인
(용신동)

위원



이재선
(전농1·2동, 답십리1동)

위원



장성운
(전농1·2동, 답십리1동)

의정활동 현황

회기운영 현황(제314회~제320회)

회기	개회일	폐회일	일수	주요내용
제314회 임시회	2022.7.8.	2022.7.8.	1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제315회 임시회	2022.7.18.	2022.7.22.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승인, 주요시설 현장 방문, 여름철 종합대책(수방)보고청취, 업무보고, 일반안건 처리
제316회 정례회	2022.9.21.	2022.10.18.	28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결산승인,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제317회 정례회	2022.11.28.	2022.12.16.	19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구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제318회 임시회	2023.02.06.	2023.02.14.	9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 일반안건 처리
제319회 임시회	2023.03.23.	2023.03.30.	8	구정질문, 주요시설 현장 방문, 일반안건 처리
제320회 임시회	2023.04.21.	2023.04.26.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승인, 일반안건 처리

의안처리 현황(제314회~제320회)

구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보류	철회	
	계	의원	구청장	원안	수정				
총계	128	80	48	109	14	3	2	0	
조례	소계	84	55	29	69	11	2	2	0
	제정	27	22	5	21	4	1	1	0
	개정	56	32	24	47	7	1	1	0
	폐지	1	1	0	1	0	0	0	0
결의안	5	5	0	5	0	0	0	0	
동의안	8	1	7	8	0	0	0	0	
승인안	11	9	2	11	0	0	0	0	
기타	20	10	10	16	3	1	0	0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1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
- 주요내용 : 정원 조정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
-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일부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
- 주요내용 : 환경자원센터 환경감시단의 효율적 관리 및 활동 관련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제31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김용호, 이규서, 한지엽, 김세종, 안태민, 이강숙, 서정인, 이재선, 노연우, 최영숙, 김학두, 정성영 의원
- 주요내용 : 2022년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5명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8명 이상 10명 이 내로 현실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수 를 최대 3명(결산검사위원의 3분의 1 이하)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한지엽, 김세종, 최영숙, 정성영, 김학두, 이재선, 안태민, 노연우, 이규서,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의 수량, 배부처, 배부방법을 현행보다 체계화하여 규정하는등 최대한 많은 구민이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한지엽, 성해란, 이재선, 정성영, 김세종,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운영비 지원)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문구체육회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한지엽, 성해란, 이재선, 정성영, 김세종,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6조(운영비 지원)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통상적으로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갑을 관계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세종, 이규서, 정성영, 정서윤, 성해란, 김학두, 이재선, 안태민, 최영숙 의원
- 주요내용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조문을 시급히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김용호, 정서윤, 정성영, 박남규,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제조업 활성화와 함께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노연우 의원
- 주요내용 :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구협의회에 대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공식명칭을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표기하고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구민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추가·변경하고,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제작·사용이 중단된 공공용 및 사업장용 봉투와 관련된 규정 삭제 등을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제31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 발 의 자 : 정서윤, 장성운, 서정인, 한지엽, 성해란, 김용호, 김세종, 안태민, 이규서, 이강숙, 최영숙 의원
-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결산의 승인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동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결산서 제출 시기 이전인 5월 26일로 명기되어 있어 정례회 집회일을 결산서 제출일 이후인 6월로 변경하여 의원들의 충분한 자료 검토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기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결산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윤, 이규서, 노연우, 성해란, 이강숙, 김용호, 안태민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의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세종, 성해란, 안태민, 이재선, 한지엽, 최영숙의원
-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
- 주요내용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21.10.19.제정, 23.1.1.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윤, 이강숙, 김용호, 서정인, 장성운, 이규서, 손세영, 김창규, 정성영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 소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노연우, 정성영, 이규서, 성해란, 정서윤, 이재선, 장성운, 손세영, 김세종, 최영숙의원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이강숙, 김학두, 서정인, 이재선, 김세종, 정성영, 최영숙, 정서윤, 장성운, 김창규, 이규서, 손세영, 노연우, 안태민의원
- 주요내용 : 정부24 등 인터넷을 활용한 증명 신청,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과 복지증진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세종, 이규서, 장성운, 성해란, 손세영, 최영숙,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센터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센터 및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영화·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화·미디어 예술특화 플랫폼’ 구축이라는 센터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급변하는 미래교육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원화되어있는 교육비전센터와 진학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불확실한 용어 및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이규서, 정서윤, 박남규, 성해란, 최영숙, 김세종 의원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II (창업지원기관)」(2022.11.7.)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센터 입주대상을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창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창업공간의 50% 이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초기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 입주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에게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의 발전과 더불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세종 의원
-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현행 조례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박남규, 손세영, 장성운, 이강숙, 정서윤, 최영숙, 정성영, 노연우, 김세종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원의 창업지원계획 수립, 창업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및 지원, 창업자·창업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판로확대, 창업지원 시책의 전담부서 지정,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 창업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하기 좋은 제반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장성운, 이규서, 김세종, 최영숙, 정서윤, 손세영, 정성영, 김용호, 성해란, 박남규 의원
- 주요내용 : 이 조례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박남규, 이강숙, 최영숙, 장성운, 정서윤, 손세영, 정성영, 노연우 의원
- 주요내용 :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송달 등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 제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023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청년과 관련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학두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2019.1.15. 시행)으로 기금의 설치·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조문 및 관련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윤, 이강숙, 한지엽, 서정인, 김용호, 이재선, 장성운, 안태민 의원
-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를 예방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이강숙, 손세영, 한지엽, 김학두, 서정인, 이재선, 장성운, 노연우, 안태민,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윤, 이강숙, 한지엽, 서정인, 김용호, 이재선, 장성운, 안태민, 이규서 의원
- 주요내용 : 현행 조례의 제8조 '실태조사' 항목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개정을 통해 우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노연우, 이강숙, 장성운, 손세영 의원
- 주요내용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정성영, 한지엽, 서정인, 김세종, 이재선, 장성운, 노연우,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 급식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및 복리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정성영, 이강숙, 한지엽, 서정인, 최영숙, 이재선,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서정인 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의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대량의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 및 동대문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서정인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이강숙, 손세영, 한지엽, 김학두, 서정인, 이재선, 장성운, 노연우, 안태민,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제7호) 및 의료사업·건강증진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한지엽 의원
- 주요내용 : 조례에서의 관계법령의 명칭을 현재 명칭에 따라 수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몇 가지 경우와 포상금 지급 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추가하며, 처리결과 원칙을 수정함으로써,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 제보자에 대한 우리 구의 포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의원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로 확대하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보장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창규 의원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교육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환경디자인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안전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재선, 이강숙, 한지엽, 김학두, 서정인, 장성운, 노연우, 안태민, 정서윤 의원
- 주요내용 :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사전적·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과 위원의 임기조항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 보장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토지포함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수립(도로설치) 청원

부 결

- 발 의 자 : 민중규 외 968명
- 주요내용 : 휘경2동 지역 주민의 도로 이용 시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휘경동 283-8번지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수립(도로설치)을 입안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임.



전농제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회복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이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조직진단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체계를 재구성하며, 민선8기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함.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운, 장성운, 성해란, 김용호, 최영숙, 김세종 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
- 주요내용 : 「스포츠클럽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관내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을 접하고 나아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지역 체육문화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노연우 의원
- 주요내용 : 관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정리 지원 관련의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윤, 서정인, 김용호, 최영숙, 김세종 의원
- 주요내용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4월 3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4월 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서정인, 장성운, 김용호, 노연우 의원
- 주요내용 :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 수준에서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8.2.9.시행)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의류수거함의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홍석 외 4명
- 주요내용 :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에 관한 부분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며 부족한 상태임. 또한 수거함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 또한 없는 상태임.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을 청원함.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제31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경조사 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일수를 부여하고,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정성영, 이강숙, 이규서, 김세종, 성해란, 노연우, 손세영 의원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사안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민 대표 단체로, 주민의 대표성 및 자주 권한이 강화된 형태의 자치기구로서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 또는 사안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미비점 및 필요한 사항 등을 다각도로 보완하여 종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김학두, 이재선, 정서윤, 장성운, 정성영, 손세영,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현행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하여 사실상 종신 계약에 준하는 장기 연임이 가능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쇄성 및 특성 지도자에 대한 종속성 심화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 동대문구 거주자로 한정 되어 있는 단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합창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김학두, 이재선, 정서윤, 장성운, 정성영, 손세영,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현행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하여 사실상 종신 계약에 준하는 장기 연임이 가능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전문성과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쇄성 및 특정 지도자에 대한 종속성 심화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김학두, 이재선, 정서윤, 장성운, 정성영, 손세영,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현행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을 계속해서 갱신하여 사실상 종신 계약에 준하는 장기 연임이 가능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전문성과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쇄성 및 특성 지도자에 대한 종속성 심화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발 의 자 : 정서윤, 김용호, 박남규, 장성운, 서정인, 김창규, 손세영, 이강숙 의원
- 주요내용 :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과정에 이사회의 추천 및 구의회 동의 거처하도록 하여 임원 인선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를 개정하여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 자원 발굴 장려 및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 7. 11. 개정(2023. 4. 1.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정성영, 성해란, 이규서, 노연우,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집적지구 내 도시형소공인 특성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장성운, 노연우, 손세영, 최영숙, 김세종, 박남규, 이규서, 김용호, 정서윤, 정성영,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동대문구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입청년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안태민 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세중, 이규서, 이재선, 정성영, 한지엽 의원
- 주요내용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현행 동대문구 관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역사 및 역 시설의 건설을 포함) 계획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최신화하고, 이와 함께 동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노연우, 이강숙, 장성운, 이재선, 손세영, 김학두 의원
- 주요내용 : 구립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규 보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며 보육 현장의 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단축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키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김세종, 성해란, 노연우, 손세영 의원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될 안내표지판 내용 중 배상책임 보험 ·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사항 ·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 시행과 사후 온전한 손해배상의 보장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 발 의 자 : 장성운, 김용호, 성해란, 이규서, 정성영, 손세영, 정서윤, 최영숙, 김세종 의원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안태민, 노연우 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김창규 의원
- 주요내용 : 행사 등의 현장 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교육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DONGDAEMUN-GU

성 해 란 의원

비례대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Q 동대문구 마을버스 운영실태와 지원 방향에 관하여?

A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개별 운수업체에서 민영제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임. 그러다 보니 경영에 대한 목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화된 상태에까지 놓여 있었음. 그러나 홍릉바이오허브 협력거점 조성사업,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경희대와 연결되는 축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23년, 내년도 예산에 마을버스 연구용역을 사업비로 올렸고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연장이나 변경을 용역 과제로 제시할 계획임. 연구용역 수행 결과 합리적인 노선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마을버스 노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지역에 마을버스가 연결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DONGDAEMUN-GU

손세영 의원

제기동, 청량리동

제317회 제2차 본회의

Q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및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의 실패 및 문제점에 관하여?

A-1 특정감사 요구와 후속절차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재생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예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200억에 우리 구에 124억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의 집행예정액은 81억원이고 나머지 43억은 연말에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전액 시비 대행사업으로 금년 연말이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 실시 여부는 금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한 후 감사의 실효성과 우리 구의 연간 감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A-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실패 원인 및 문제점 :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발주, 착수하여 20년 1월 9일 서울시보에 고시된 사항으로 고시된 내용과 활성화 계획 용역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음. 고시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업을 변경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결국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여 사업을 하지 못했음. 그리고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배송사업을 하다 보니 긍정적이라는 용역 평가가 있었습니다다는 여러 시장 간에 상인회의 의견이 달랐고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배송사업을 진행했는데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갔었고 시 사업이 완료된 이후는 상인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 용역결과 상인회에 주민들 의견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었음.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전액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 도시과에서 재생사업 총괄 예산이 배정되어 전체 사업 관리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음. 세부사업별 추진은 사업의 특성상 소관 실행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지속가능도시과는 협업을 하여 처리를 하였음.

Q 노인 무료급식소 사업에 관하여?

A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95%, 구비 5%의 보조금 매칭인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과 시비 100% 보조금으로 밑반찬 배달사업을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어르신 860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 급식 단가는 4,000원이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4,000원에서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 향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단가 인상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구 자체재원 및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급식대상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제3차 본회의

Q 답십리 영화 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A-1 답십리 영화 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
영화미디어 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목표로 해서 현재 답십리미디어센터에서 전 연령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영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대여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약체, 영화·미디어예술 문화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무비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임.

A-2 인력 부족 문제 :
센터 내 PD, 영상촬영 편집이나 홍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상장비나 촬영, 편집, PD 등 인력 보강을 검토 중에 있음.

A-3 부실한 시설 관리 :
자체 점검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 센터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단과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 노력하겠음.

Q 전통시장 보행로 적치물 처리,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로 인한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 교통 혼잡에 관하여?

A-1 주차행정과 소관사항 :
불법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동시장 및 청과물 시장 주변에 서울시 및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 6개소와 차량용 이동형 CCTV 및 주·정차 단속반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경동시장에 인접한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은 평일 심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및 교차로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2열 주차 등은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음.

A-2

도시경관과 소관사항 :

현재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점포는 총 39개소로 이중 일부 점포에서는 점포 앞 인도에 불법 철골 구조물까지 만들어서 천막을 씌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로상 불법 점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음. 1단계로 각 점포에 안내문 배포 및 공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토록 1차적으로 독려하고 이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2단계로 불법건축물과 불법도로점용에 대한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3단계, 지속적인 순찰로 과태료 부과와 물품 강제 수거 등을 통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Q

센터장 임용 등 인사문제 지적에 관하여?

A

직원 인사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승진과 전보를 운영하고 있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기 전보 시 대상자의 자질과 실무 능력 또 부서별 결원과 현안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등 직렬의 형평이 지나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함. 실무주사 보직 부여는 승진 당시 서열이나 주요업무 또 가점과 휴직 사항을 고려해서 가감점을 적용하고 보직 순위를 정하고 있음. 또한 팀장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의 성격이나 해당 주사의 실무주사의 보직 순위나 자질과 능력 등을 두루 검토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음. 앞으로도 직렬의 차이에 소외감이 가지 않게 다수 직원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승진이나 보직 부여를 위해서 직렬별, 직급별 인원 분포, 또 직종별 업무의 난이도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음. 추가로 말씀하셨던 센터장이나 센터의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그러한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했음.

Q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관련(보충질문)

A

지나온, 거리 조성 추진계획이 당초에 수립돼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총괄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 서면 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진행과정 과정에서 변동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세부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봄. 또한 미디어아트센터 내부만 조성되는 공사가 아니고 연육교 기둥이나 또 가로등에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바닥조명, 보행환경 개선공사, 체육관 앞 가로등 이설공사, 문화원이 당시에 있었던 이전비용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사업비임.

Q

센터장 임용 등 인사 문제 지적(보충질문)

A

센터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임용 건에 대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정해진 절차도 있지만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경력증명서 등을 받아서 채용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할 때 법제처에 구두질의 등 여러 가지 타 시도 사항도 검토를 했었고 실무경력이 직무 분야의 응시자격에는 미흡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와 채용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임.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더 심층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논란이 없도록 하겠음.

DONGDAEMUN-GU

정서윤 의원

답십리2동, 장안1·2동



제317회 제2차 본회의

Q 동대문구 축제·행사 안전대책에 관하여

A-1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우리 구의 안전대책 :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심의대상이 되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필요 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미 관련 방침을 득하였으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음. 또한 말씀하신 지역축제가 아닌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음.

A-2 우리 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대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 또는 고위험 지역축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안전계획을 민간에서 제출 받아 안전재난과로 심의를 요청하게 됨. 안전재난과에서는 심의가 요청되면 관련 유관부서 및 경찰서,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동대문구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게 됨. 또한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행사주최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계획에 반영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행사 전에 유관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A-3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방안 :
현재는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계획 수립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지침이 없는 사항으로 금번 이태원 사고 이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동향파악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행사기간에는 CCTV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유관기관과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경찰 훈잡경비 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구조대 현장 대기 등 현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일문일답) 구민회관 건립 계획, 우리구 BI-CI계획 재수립, 공원 선진화 추진 건 관련

Q 금년 중으로 주민들에게 구민회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의향 있으며 금년 중 언제라도 설명회가 가능함.

Q 언제라도 설명을 하기에는, 당초 예정된 계획안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단계라고 들었음.

A 이필형 구청장
구민회관의 문제는 폐쇄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저의 생각임. 구민회관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신축을 하든지 종합예술회관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한 3, 4년 전에 폐쇄되어 현재 흉물화되어 있음. 제가 주민들에게 듣는 민원은 신축보다도 '저 흉물 덩어리 빨리 철거해라'는 것이었음. 그래서 철거를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지으려고 지난 연말에 회의를 했을 때는 신축을 하면 2025년이면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 판단을 했음.

그런데 서울시와 상의를 하고 건축 진단과 해체 공사,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건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많은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늦게 지으려고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임.

Q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은 분명히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에서 추가 계획이 수립될 텐데 빨라도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그래서 저는 원래 상반기 때 진행해 주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일정을 고려해서 금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임.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바뀌는 계획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봄.

본 의원이 주민 소통의 건을 언급한 이유는 2023년 1월에 미래행복정책과로부터 받은 자료 상으로는 빨라도 2026년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서는 2월 22일 주민소통회 때 2025년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혼선이 생겼기 때문임.

A 이필형 구청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그 흉물을 빨리 치우라는 요청이 있었고 장안동 주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적어서 빨리 착공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지난번 주민소통회 때도 너무 적은 공간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임.

Q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한 시기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중에 장안1동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꼭 부탁드립니다 바임.

다음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받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약 846억원의 사업비가 추산되었는데, 물론 향후 일부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가감이 있겠지만 약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상황임. 이 예산의 국·시비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필형 구청장

현재 총 사업비는 약 1,04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음. 그 중 구민회관 부지 가격을 약 140억원으로 보고 있어서 약 904억 정도의 조달이 필요한데 일단 중앙투자심사 이후 본격적으로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 고려할 예정임. 현재 목표치는 시비 특별교부금이 약 100억원, 특별교부세 국비가 약 10억원임. 나머지 소요 예산들에 대해서는 심사 이후에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음.

Q 아울러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당을 떠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당을 떠나 우리 구를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A 이필형 구청장

행정에는 당이 없다고 생각함. 행정은 불편부당이고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과의 상의할 것임.

Q 구민회관 재건축의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단계에서 재수립이 된다고 해당 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철저히 수렴하셨으면 좋겠음. 물론 작년에 주민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성별·연령대별 표본 없이 주민센터와 직능단체에 일임하여 진행된 설문조사는 다소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우려가 됨.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단계에서 명확하게 표본계획을 가지고 전문리서칭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총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계속 반영할 예정임. 2023년도까지 다양한 형태로 접수되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중요한 것은 2024년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 때, 주민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주민과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겠음.

Q 2023년에 구민회관을 철거한 이후 2027년까지 약 3년에서 4년간 그 부지는 나대지로 방치될 것임. 이를 방지하고자 미래행복정책과에서는 그 부지에 꽃밭 또는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다가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텃밭으로 계획을 잡겠다고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A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텃밭으로 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현재 콘크리트 자재를 최소 1m 정도는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됨. 철거한 상태에서 도시농업 자재비로 약 2,8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참여자 표찰 및 장비 임차료 등으로 1,400만원 정도, 휴게시설 및 급수시설 등으로 1,4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4,300만원 예상해서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우리가 예측하는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 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Q 텃밭이 조성되고 나면 그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로 예상하는지?

A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정확한 가구 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에서 현재 중랑천 텃밭을 공모했을 때 약 3.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음. 다만, 주차장 부지가 구민체육센터와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Q 중랑천 텃밭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우리 구는 예산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3년간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봄. 집행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본 의원은 최소 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반드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 그 도로를 보행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인근 지역을 자주 보행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의견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A 도시건설국장 김만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음.

Q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 종합브랜드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물론 작년에 용역비를 들여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또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2022년 12월에 진행되었던 2023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BI 및 품질인증마크 제작 3,000만원, 답십리영화미디어

센터 로고브랜딩 개발비 1,000만원으로, 모두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임. 이 예산들이 삭감되었던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를 개발하고 우리 구 산하기관 전체에 우리 구에 일원화된 아이덴티티를 적용해서 약령시,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모두 브랜드만 보고도 이 기관들이 동대문구에 있는 곳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보시는 자료는 호주 멜버른의 도시브랜드로 각각의 부서나 행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 왔던 아이덴티티를 멜버른(Melbourne)의 이니셜 'M'을 기반으로 통합해서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도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국내 사례로 김포시와 국립현대미술관을 들 수 있는데, 김포시의 경우 김포를 중심으로 확장하며 뻗어나가는 관문을 형상화하여 영문명의 가독성을 높였고 다양한 형태와 컬러로 변형하여 유연하고 가변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음. 국립현대미술관은 기관 영문명의 약어인 'mmca' 심볼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응용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를 창출했음.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려서 동대문구의 브랜드를 전면 개선하여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와 같이 산하기관과 다른 행사 등에서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통합브랜딩을 다시 한 번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A 이필형 구청장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Q 우리 구 공원 체육시설의 획일화, 노후화, 정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시설이 더욱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임.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공원 벤치인데,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역구 내 모 공원 시설개선공사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이 벤치를 철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벤치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음. 물론 기성품이고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선호하고 추천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일부 공원들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복되는 공사들을 최소화하고 그 공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노력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사진은 국내·외 공원들에 설치된 다양한 디자인 벤치들로,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해왔던 동대문구가 아니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동대문구를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적용하는 노력을 앞으로 충분히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A 이필형 구청장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DONGDAEMUN-GU

정성영 의원

전농1·2동, 답십리1동

제317회 제2차 본회의

Q 신담고가도로 철거에 관하여?

A 황물로를 횡단하는 신담고가도로는 78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45년이 경과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임.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계부서에 철거 요청을 건의하였음.
서울시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태가 B급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하였고, 주변 교통 현황을 고려한 상태로 볼 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래서 현재까지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Q 도로부지 매각 부당불법(답십리동 528-1, 528-2)에 관하여?

A 해당 구유재산 매각 건이 처리하는 절차나 규정이 위반되었는지의 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본 바,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향후에 행정 재산 용도폐지나 공유재산 매각 시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우리 구 전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Q 청량리 일대 노점상 도로정비 계획에 관하여?

A 우리 구는 청량리 일대에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0일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2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비 방향과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있음. 현재는 노점상 거리가게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재정상태, 그다음에 생존의 목적인지 재정의 목적인지를 분별하여 우리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의 자문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Q 불법건축물 법포의 처리방향에 관하여?

A 우리 구에서는 다일복지재단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1회, 시정지시 2회를 하였으며, 무단증축 부분 일부 사용에 대해 22년 10월 28일에는 위반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재단 측에 통보하였음. 현재는 2차 시정지시 기간 중에 있으며 추후 다일복지재단에서 시정지시에 불응할 시에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

Q 청량리역 신성아파트 쪽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 및 안전보도 설치 건에 관하여?

A 청량리역에서 신성아파트 방향의 임시보도육교는 2010년에 임시로 설치된 보도육교였음. 금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고, 그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철거 후 재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임.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의 보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아울러 청량리 광장으로부터 시립대로로 연결되는 청량리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서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Q 동대문구 관내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에 관하여?

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소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편익시설을 음수대, 공중전화실로 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소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법령상 어려움이 있음. 다만,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하는 관련 법규상 가능하며 현재 어린이공원 29개소 중 7개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2개소는 미설치되어 있음. 공원 내 화장실 설치 시에는 공원 여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작년 21년도 12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아름드리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인접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설치하지 못하고 중랑천 제방으로 옮겨서 설치한 바가 있음. 공원 내 화장실은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편익시설이나 인근 주민에게는 안전, 위생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하고 반대 민원이 없어야 설치가 가능함.

(일문일답) 환경자원센터 문제점 및 밥퍼 이행강제금 처리 및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 관련

Q 밥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나 저나 밥퍼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밥퍼에서 찾아가는 밥퍼를 하자고 했던 부분임. 그런데 밥퍼 측에서는 동대문구청에서 밥을 못 푸게 한다고, 어려운 분들께 밥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당한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신지?

A 이필형 구청장
밥퍼에 직접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밥퍼의 포퓰리즘 논리 속에 저희가 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현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음.

Q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밥퍼 측에서 불법적으로 증축한 불법건축물과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알고 있음. 구청장께서도 공약으로 밥퍼 측에 밥을 퍼드리는 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자는 방안이지 밥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맞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지난 12월 28일에 이행강제금을 서울시와 밥퍼 측에 공동 부과한 상황임. 사실 밥을 푸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원하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좀 해 달라,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

Q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법대로 할 것임. 일단 불법건축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건축물 사용 중단 요청을 밥퍼 측에 하고 서울시에는 사유지 내 위반건축물 조치 및 행정재산 관리 요청을 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그리고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인 1월 27일까지 미납되어 지난 2월 1일 독촉고지, 3월 15일에 또 체납고지를 실시한 바 있음. 4월에는 재산압류 예고 통지를 할 계획이며, 5월에 재산압류 조치를 실시하겠음.

Q 다음으로 환경자원센터 관련 질문을 드리겠음. 구청장께서는 얼마 전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셔서 환경을 잘 보고 오셨을 텐데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떠한지, 어떠한 개선 방안을 찾고 계신지 묻고 싶음.



이필형 구청장

좀 어수선하고 냄새도 많이 났으며 개선 여지가 참 많겠다는 생각을 했음. 현 상태에서 악취 제거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플라스마’라는 냄새 제거 기계를 일부 도입했고 그것이 성과가 좋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전 층에다 ‘플라스마’를 배치토록 할 예정임.



환경자원센터의 또 다른 문제점은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임. 분리수거하는 근로자들이, 물론 동대문구민도 있을 것이고 타 구 구민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텐데 이 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방법은 없는지?



이필형 구청장

저희가 ‘서희건설’이라는 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을 한 부분임. 저도 근로자들 임금이 얼마인지 들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실무자들 의견은 서희 측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하여 당시 의견 전달은 하였으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동대문구를 아홉 바퀴 돌면서 동대문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셨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동대문구 행정을 먼저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 팀 주무관부터 팀장들을, 물론 차담회 해서 보여주신 홍보성도 좋고 친근감도 좋지만 각 팀별로 구청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음. 그렇게 각 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팀장 얼굴도 알고 직원들 얼굴도 알고, 그러면서 업무 파악도 하고 직원들의 인사고과도 매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됨.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필형 구청장

차담회 등은 지금도 하고 있으며,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음. 아까 구청장께서 밥퍼 문제, 거기서 잘못되면 역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께서 책임지고 행정, 법 똑바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홍연 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대응하고자 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밥퍼 관련 TF 회의를 제가 이끌고 있음.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주택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음. 아까 이필형 구청장님께서서 밥퍼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셨고, 부구청장님께서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주택교통국 소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음.

A 박일형 주택교통국장
저희 청의 방향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법과 원칙이고, 홍보나 대외적인 발표도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음. 이행강제금도 그런 절차에서 나왔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산압류 절차도 진행 중임.
그리고 토지주인 서울시와 협의해서 토지 사용승낙 취소에 대한 요청도 이미 한 상태이고, 밥퍼로 인해 주변 교통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주변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놓은 상황임.

Q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음. 이필형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동대문구 인수위원회가 생겼을 때 밥퍼 문제가 거론되었었고 당시 이용자 현수조사를 하려고 했었음.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중 동대문구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는지?

A 손환식 주민복지국장
최근에 밥퍼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구조사를 한 적은 있는 있는데, 동대문구민이 이용자의 6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음.

Q 60%면 몇 명인지? 전에 국장이 본 의원에게 답변하기로는 동대문구민이 이용하는 숫자는 하루에 120명에서 130명이라고 했고, 밥퍼에서 하루에 500명에게 밥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380명임. 이 부분에 대해 타구에서 정확히 몇 명이나 오는지 현수 파악은 되어 있는지?

A 손환식 주민복지국장
3일 가량 조사를 했던 부분이라서 많은 전수를 저희가 조사해보지는 못했고, 타 구 어느 구에서 오는지까지는 파악한 바가 없음.

Q 인수위원회 안건에 올라가 있는데 왜 여태 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라도 이용자가 동대문구민이 몇 명인지, 타 구 구민이 몇 명인지 현수조사 하시기 바람. 조사 시 인권 침해라느니, 개인정보 유출이라느니 말씀이 나오면 우리 동대문구에 계신 사법경찰, 특사경 그분들이 가서 해도 된다고 봄. 그래서 현수 파악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A 손환식 주민복지국장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그 이후에 8월에 주택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파악하지 못했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

Q 안전생활국장께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음.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귀용 안전환경국장

환경자원센터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인데, 민간에서 동대문구의 모든 쓰레기를 책임 처리하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온갖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악취부터 시작해서, 폐수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문제점들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왜 개선방안을 찾지 않았는지?



이귀용 안전환경국장

사업 시행 자체가 책임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실시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시설 개선이나 교체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사 측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부 매년 운영 관리비를 주고 있어 그 돈으로 시설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



지금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약 63억원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관리 회사에 지급했고, 2022년도에는 약 67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예산이 73억원으로 책정돼 있음. 그런데 동대문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분들은 적자라고 함. 그 적자는 ‘서희건설’이 처음에 35%를 출자하기로 하고 건축에 들어왔고, 본인들이 대출받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나가서 부족한 것을 왜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음.

운영비에는 처리비용도 있지만 관리비용도 있는 것임. 기계 설비가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예산을 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구청 행정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귀용 안전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음. 여태까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서희건설’에서 ‘TSK’로, ‘TSK’에서 다시 ‘서희건설’로 운영권이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용료 부분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60억에서 70억 가까이, 금년도 기준으로 73억까지 나가는데 사용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예산을 절감하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든지 간에 저희가 환수 청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음. 해당 금액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라는 부분은 2003년도 10월 기준으로 불변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음. 따라서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사용료가 책정됨.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73억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고정사용료가 금년도 기준 53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변동사용료라든가 관리비 같은 것들임.

Q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람.

A 이필형 구청장
‘브로워(blower)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전의 ‘발효화 방식’에서 톱밥과 슬러지를 섞은 다음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서 퇴비를 발효화시키는 압축 방식임. 이 때 슬러지 처리 과정에 비산 먼지가 나오면 악취저감장치가 마비될 수 있어서 2013년도부터는 그 설치를 제거한 상태임. 그것을 다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으로서는 슬러지를 경북 안동과 봉화 지역으로 30톤씩 보내고 있는 상황임. 현재로서는 이것을 약 10톤 정도로 잘게 나눠서 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음.

Q 정성영 의원(정리발언)

본 의원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가보면서 반성과 후회를 많이 했음. 2004년도, 2005년도에 ‘서희건설’에서 혐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으로 환경자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반대했던 사람임. 그런데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서희건설’이 혐기성 음식물 처리 방식을 동대문구청 바로 앞에 설치하도록 방치를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임. 2006년 11월에 ‘서희건설’이 착공했고 2010년 12월 2일에 개관했는데 동대문구에 제출한 설계대로 된 게 없음. 당초에 전기를 연 6,200,000kW 생산해서 27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2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했는데 되는 게 없음.

2022년 7월에 본 의원이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발전기는 돌아가지도 않았고 공기 청정기도 돌아가지도 않았으며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엇그제 방문 때도 똑같이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꾼다고 하고 있음. 2019년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안규백’의원께서 9억원이라는 예산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지원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갔으며 어디에 썼는지 동대문구청에서 확인했는지?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혐기성임.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슬러지를 퇴비화, 사료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임. 대한민국 최초라고, ‘서희건설’이 부산 사상구에 17톤짜리 조그마한 혐기성 방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고 두 번째가 동대문구임. 이후 ‘서희건설’에서는 혐기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어디에도 한 곳이 없음.

1톤의 음식물에서 염기를 빼기 위해서는 1톤의 물이 필요함.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저장고에 한 달 내내 음식물 저장하고 있다가 침출수,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빠지면 뚜껑도 없는 수직구에다 물이 떨어지게 하니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관리 부실임.

생활 폐기물이 한 달에 270톤 압축해서 나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는 일회용 라면을 먹고 버린 용기, 음식물 배달 받은 용기,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용기 다 같이 압축돼 있음. 여러분께서 PPT 자료를 보셨을 때는 바로 눌러서 이동용 차량에다 넣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음. 여기서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오고 침출수가 나오고 냄새가 남. 폐기물이 나오는 즉시 보내도록 바꿔야 함.

이런 식으로 지난 12년 동안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고물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자원센터가 되고 있는 것임.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조에 넣어서 한 달 동안 지나가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이 열을 가해서 산화가 됨. 그 열이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발생하는 열로 발전기를 돌려서 1년에 6,200,000kW 만들어서 27억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음. 며칠 전 시설방문 때 본인들 말로 한 달에 5,000만원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음. 설계도상에 발전기가 안 들어간 것으로 보임. 이제라도 바꿔야 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설비가 들어왔으면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함. 안 그러면 2030년 동대문구로 돌려받았을 때 고물이 되고 고철이 되어서 없애 버려야 함. 제대로 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함.

당초 이 설비가 한 달 동안 들어 있던 저장고에서 나오는 음식물 슬러지를 이 통에다 넣으면 퇴비화가 되고 사료화가 되는데 지금 염분제거가 되지 않고 있음. 이러다 보니 퇴비화도 안 되고 사료화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 27개 혐기성 시설에서 퇴비화, 사료화를 못 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화하려고, 사료화하려고 톱밥 넣고 돌리고 열을 가하다 보니까 구멍이 막혀서 사용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방지하는 설비를 넣어야 함. 이 설비를 작동 안 하다 보니까 그저 한 달 동안 있던 저장고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패된 것이 운반용 차량에 쏟아지고 있고 뚜껑도 없이 쏟아붓고 싣고 나가는 상황임. 관리 부실로 냄새를 60%, 70% 가중시키고 있음.

지금 행정 공무원이 이 설비가 뭔지 모르니 이제 배워야 함. 그래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함.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임.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가시면 방문객에게 보여주는 PPT를 보고 PPT 내용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점 찾아서 지적하기 바람. 처음부터 설계대로 기계가 설치가 안 됐다면 설계대로 기계 넣으라고 '서희건설'에 요구해야 함. '서희건설'은 지금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2030년에 이거 누가 할 사람 없으니 우리가 또 해 먹는다 그 생각 가지고 있음. 불량이 아니고 고물이 아닌 설비 2030년도에 받아서 더 관리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 위탁 주기를 바람.



DONGDAEMUN-GU

김학두 의원

이문1·2동

제319회 제3차 본회의

Q 이문로 확장 계획 및 향후 대책 관련하여?

A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문로 확장에 대해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1차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아울러 이문로 확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기시장에서 외대 정문까지 구간을 포함한 이문로 전 구간의 확장에 대한 검토를 이문로 도로확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음. 이문로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와 대안 마련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하도록 하겠음.

DONGDAEMUN-GU

노연우 의원

답십리2동, 장안1·2동



제319회 제3차 본회의

Q 저출산 대책사업인 출산지원금에 관련하여?

A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생아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2020년에는 1,613명 7억 1,700만원, 2021년에는 1,722명 7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음. 2022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여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에 따른 인구 유출입 예방 및 이중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자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 지원금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고, 동대문구 등 18개 구가 출산지원금을 2022년도에 종료하고 강남구 등 7개 구는 출산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음.

Q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A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임신부, 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외 4개 사업과 모자건강관리센터 건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8개의 신규사업을 포함 총 39개 사업 1,238억을 투입하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저출산 대응 T/F를 구성하여 임신, 출산, 보육, 돌봄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임신과 출산, 보육과 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대응정책 발굴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DONGDAEMUN-GU

이강숙 의원

비례대표

제319회 제3차 본회의

Q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도로확장과 주변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A-1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 건 :
 준공 당시에는 유효 보도폭 1.7m의 보도가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유동인구 및 자전거이용자가 증가되어 교행 시에 불편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임. 다만, 관리부서가 서울시 교량관리과 및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 보도 설치 기준인 2m 이상으로 확장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실제 실행까지는 예산확보나 구조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시공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시다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보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2 동부간선도로 휘경동 방면 진입로 과속방지턱 보완사항 :
 현재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동부간선도로에서 망우로로 진입하는 가상형 방지턱에 대해서 '원호형' 형태의 방지턱으로 설치를 요청하였지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간선도로 상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음.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가상형'을 '원호형' 방지턱으로 교체 요청토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3 재활용선별장의 쉼터 환경개선 건 :
 휘경동 재활용선별장 쉼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에 주민들의 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음. 현재 휴게시설 벤치 일부가 노후되어 있고 고사된 수목과 웃자란 나무로 인해서 경관이 저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우리 구 직영 인부를 활용하여 고사된 수목 제거와 웃자란 나무는 전지하는 등 경관개선을 우선 시행하였음. 예산이 필요한 휴게시설과 수목 보식, 그리고 꽃 식재 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휘경아들리에 지하 출입구 문제점에 관하여?

A 최근에 지하보도 주변에 횡단보도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주민 이용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음. 다만, 지하보도 출입구 4개소 중에 북측 1, 2번 출입구를 주로 이용 중에 있으나 해당 출입구로 인한 보도폭 협소가 심각한 사항임. 이에 휘경 지하보도 1, 2번 출입구 개선방안 마련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6월, 7월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는 해당 출입구를 폐쇄하고 폐쇄된 상부 공간은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용 보행환경에 쾌적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남측 3, 4번 출입구는 지하보도 내 민간위탁 운영 시설 진출입로를 위해 존치하고 정기적인 도로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Q 동대문 오랑 철거에 관하여?

A-1 공간조성 절차 :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여부를 서울시에 확인한 바, 청년 공간시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참고로 사전승인 절차로 토지 소유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본부를 비롯하여 점용기관,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전액 시비로 조성 및 운영 중에 있음.

A-2 청량리역 광장에 가건물로 설치된 이유 : 서울시에서 지하철역 주변 접근성이 좋은 공간 발굴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교통 중심지이자 인근 관내 대학들이 인접한 청량리역 광장을 추천하게 되었음. 청량리역 광장은 철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 경량철골조 구조 형식으로 시공되어 있음.

A-3 ‘동대문 오랑’이 우리 구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과 역할 : ‘동대문 오랑’의 주 역할은 청년 접점 창구, 지역 자원 연계, 고용창출 등이며, 참고로 2022년도에 추진하였던 주요 사업으로는 1대1 상담 및 구립 상담을 비롯한 멘토링 사업, 원데이 클래스, 취업 맞춤 컨설팅 등이 있으며, ‘동대문 오랑’ 전체 이용자 31,613명 중 우리 구 청년 61%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 외에도 우리 구와 협업을 통하여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10건의 MOU를 체결하였고 33건의 협력사업도 추진한 바 있음. 또한 ‘동대문 오랑’ 직원 채용 시 동대문구 청년을 우대하여 우리 구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였음. 기존의 사업은 물론 예비 청년인 관내 고등학생까지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선제적 청년정책에 주력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Q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도로 확장과 주변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충질문)

A 중랑구와 우리 구가 걸쳐져 있는, 2개 자치구에 걸쳐져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개선 대책으로 중랑교를 담당하고 있는, 걸쳐져 있는 중랑구와 우리 구가 협업을 해서 서울시에 동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 동대문 오랑 철거에 관하여?(보충질문)

A-1 왜 25개 구 중에 우리 구였나 :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의 중심지다라는 이유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 구가 당시에 추천이 되었고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랑 12개 구와 그리고 무중력지대에서 오랑으로 바뀌는 5개 구 해서 17개 구가 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랑을 더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A-2 구 관내 비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 :
이용자에 대한 비율은 나오지 않는 게 맞음. 31,613명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상담이나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카운트 숫자이며 말씀드린 60%라는 의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내 청년이 몇 명일까를 나타냄.

A-3 고용창출 부문 :
취업 관계 연계도 하고 있고, 당장 '오랑'에 취업을 할 때 관내 청년들의 50%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하나마 취업 연계도 한다.라고 파악을 했음.

DONGDAEMUN-GU

최영숙 의원

용신동



제319회 제3차 본회의

Q 구 관리 공공시설의 주말개방 확대에 관련하여?

A 공공시설 운영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의 운영 규정과 구민 이용률 또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시설 운영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요일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도 토요일은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정규 인력을 총원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봄. 구청의 책마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지난 3년간 하면서 구청의 청사 보안 문제, 또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주말에 개방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음.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은 저희 구청에 직영 시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데 각 시설의 보안관리 문제 또 이용자의 안전성, 시설운영 인력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문제도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말 이용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음.

Q 구정 후문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관하여?

A 작년 4월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사대문 밖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지하철역 100m 이내 대상지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차기획과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기에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용신동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등 관내 특화거리 관리실태 점검 조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A 이전에 만들어진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는 현재 분점 포함 6개 업소만이 영업 중에 있음. 현 시점에서 쇠퇴하고 있는 용두동 주꾸미 골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짐.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주 중심으로 해당 구역 내에 상인 자생조직을 구성하고 할인쿠폰, 제로페이 적극 권장, 특히 유튜브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음. 또한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각종 매체와 우리 구 홍보대사들을 통한 특화거리 홍보 등 지역 상권화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정성영 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대문구 주차장은 지하1·2층, 지상에 주차면적이 좁아서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의원도, 동대문구를 찾는 구민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20분을 지하 1·2층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민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회기 중에 주차의 불편함이 있어서 동대문구 의회사무국에 의원 전용, 회기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과잉의전이고 갑질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동대문 구민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회기 중에만 동대문구의회의원의 전용 주차장을 지하2층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저의 이 말씀을 똑바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민선 구청장이신 이필형 구청장님과 전임 4년 동안 부구청장을 하고 다시 재임을 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동대문구 직원에게, 간부에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전임 구청장의 관례이고 전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하1·2층 가보셨습니까? 동대문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전용 차량이 있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안 들어가봐서 모를 겁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주차면적에 제품이 쌓여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패널로 창고를 만들어서 폐기물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22면 이상입니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잊어버린 22면을 찾겠습니다. 그것은 전임 구청장의 관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왜 우리 다리 밑에 있는, 발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단속 못 하고 서민의 주차장만 단속해서 강제이행금 물리고 고발조치를 합니까? 이것이 전임 구청장의 관례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의회를 무시하고 동대문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공무원을 봤습니다. 동대문구 의장의 추천권, 인사권 무시하고 동대문구 의원의 심사위원을 심지뽑기를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구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지하 주차장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을 묵인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징계절차 밟아 주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동대문구청 지하주차장, 동대문구를 찾는 구민께 그리고 주차할 곳 없어서 뱅뱅이 돌고 있는 동대문구 의원께 돌려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관례, 전례를 찾는데 지금 불법 비리,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 전례에 따르면 동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금품수수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구청장 혼자 하겠습니까? 동대문구인사위원회, 진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동조 안 하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 의원 여러분!

동대문구 의원을 동대문 구민이堂堂하게 권리를 찾고堂堂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고 선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을 떠나서, 당리당락을 떠나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운 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행부는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하2층 주차면수 170면 규모의 사업이 계획변경으로 지하1층 주차면수 86면 사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당초 확정예산 127억원에서 공사비 과소산출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약 164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주차면수를 170면에서 절반 가량이나 줄인 반쪽짜리 사업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지하주차장 건설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사업비를 적정 공사비보다 과소산출하였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 의원과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원안대로 초과사업비 164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주차장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상황 조치를 어렵게 만들고 어르신·아이들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주차난은 이웃 간에 갈등으로 번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2022년 8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98,57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3.4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주차난 해소에 손을 놓고 있으면 주차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역 구석구석 어디든 사람보다 차가 많다는 주민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동대문구청장 취임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의 원안 추진은 동대문구를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주차면수 확보를 추진해서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와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금년 5월 이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8월 이필형 구청장께서 함께 한 장안1동 주민소통회에서 주민께 보고까지 다 드렸던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

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구청장이 바뀌며 이 모든 계획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것이라 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급된 우리 구민의 월세 약 5,000만원은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일반적인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교환이 추진되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서울시가 동대문구에 47억여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4,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토지교환 차액 약 45억원의 손해뿐 아니라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행된 감정평가 비용도 우리 구가 부담하며 우리 구민의 월세 약 4,000만원이 또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니 그에 맞는 새로운 비전계획을 수립해야겠지요. 이번 추경에 '동대문 미래 비전 2050'이라는 연구용역을 초기계획 5억 5,000만원으로 해당 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강북구는 약 6억, 관악구는 4억의 예산으로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니 우리 구도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강북구와 관악구는 총 용역기간이 18개월입니다. 우리 구는 9개월입니다. 해당 과에서 제시한 10개의 타 자치구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월 단위 평균 용역비용은 3,400여만원이고 우리 구의 월 단위 용역비용은 초기 예산 기준 6,100여만원이었습니다. 타 자치구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타 자치구도 매월 더 많은 투입비용을 들여 더 빨리 용역결과물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일에는 정해진 공정과 기간 당 적정 산출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타 자치구도 그만큼 비용을 집행했으니 우리 구도 그러겠다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2017년에 유사과업으로 집행한 금액은 9개월 기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합당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구는 특정 회사가 10개월 동안 특정 과와 여섯 번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2억의 용역비가 불법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태는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은 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허공에 흩어진 예산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의 월세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필형 구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가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사회에서 적은 급여로 실무를 도맡아 하는 7급 이하 실무자들과 계약직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필형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리는 청량리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투명한 행정, 합리적인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세입 결산 기준 우리 구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16%에 달합니다. 확장하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만 우리 구의 예산 집행률은 2019년 86%에서 2021년 81%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5년 평균 37%씩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증가하는 예산 규모를 감안한 신규사업 추진에 소홀합니다. 집행률이 80%도 안 되는 사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도 문제입니다.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사용한 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반영한 추경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세입예산은 개척 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원은 넘쳐나는데 신규사업 발굴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예비비나 기금 적립만 하고 있으니 집행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조한 집행률도 문제입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실적이 아주 없거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됐고 사업규모 조정과 사업방식 다변화 같은 대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방만한 사업 집행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자된 단일사업으로써는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 사업 종료에도 집행률은 22%에 불과하고 12개 세부사업 중 8개 사업은 착수도 전에 폐지되거나 계획만 세우다 예산의 20%도 못 써보고 종료됐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구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사업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

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유재원이 수백억원에 달해도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스마트쉉터나 키즈스테이션 조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 등 구민에게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사업도 변해야 합니다. 시설만 현대화할 게 아니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경영현대화에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유통시장의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마켓이나 배송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의 질적인 개선입니다. 어렵게 공모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와도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부서의 실적 쌓기용으로 전략하고 정작 사업 추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공모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최고의 정책적 산물이며 주민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 체감도 높은 신규사업 발굴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해 란 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미국 역사상 첫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힘과 지위의 정도가 곧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 지도자와의 만남에서는 우리나라에 여전한 '유리천장'을 지적하며 양성 평등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불평등한 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9,96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3% 감소했습니다. 006년부터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총 334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과 3,038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핀란드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남녀평등 지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취업률은 71.8% 수준으로 남성취업률 72.8%와 큰 차이가 없으며 공동체는 육아에 우호적이고 남성의 육아부담도 높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녀평등 지수는 99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여성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무려 20%나 뒤집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고 사회 분위기는 육아에 아직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결혼 건수가 얘기하듯 청년세대, 특히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거 문제와 부담스러운 결혼 비용,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구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과 함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지기에는 당연한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그리고 일상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그리고 시민교육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가단위의 정책과 함께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개발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운영 목적은 남녀평등 문화 확산과 평등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그리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등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13개 부서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25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19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7%에 불과합니다. 2020년 대비 무려 1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저조한 집행률도 문제지만 성인지예산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문제입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 사업 중 중소기업 자금 지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 수혜대상이 불특정하고 성인지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20.8%에 달합니다. 성인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인지예산이야말로 직접적으로 양성평등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이 성공하면 사회 모든 부문이 성공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을 전해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형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의 시급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주민-집행부 간 부단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집행부와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6년 11월 당시 구청장과 반대대책본부 대표자 9명은 쓰레기처리장 건설 시 요구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기재된 18개 요구사항 중 몇 가지를 제외하면 주민께서 체감할만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이행에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몇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출연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은 사용액 대비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부족한 기금 조성도 문제지만 기금 사용 실적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보전협의회 등 활동수당 및 사업비, 우수시설 견학, 주민 홍보지원, 음식물종량제봉투 및 처리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수시설 견학 실적은 전무하고 집행액이 30만원에 불과한 주민 홍보 지원사업은 목적도 그 취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주민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도 문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의 목적은 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지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책무라는 게 지자체라면 어디나 하고 있는 폐기물 감량화 시책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체감도 높은 주민지원을 위한 몇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학조사의 실시입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인자와 건강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인근 주민들, 심지어 구청 직원들도 악취를 느끼고 굴뚝 연기로 수목이 검게 그을리는 등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경자원센터 일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복지시설의 개방 확대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환경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용료 우대 같은 혜택이 미비해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의 무료 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자원센터 설립 당시 구청장·주민 간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민·관이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환경자원센터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주민들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시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보다 귀담아 듣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남규 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먼저, 집행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출 규모는 매년 증가해서 작년 기준 150억원에 달하고 이외에도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

수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들의 합산 가치는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화재단은 어떻습니까? 1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미디어아트센터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의 위·수탁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치로 보이는 돈의 크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순간부터 각 부서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선발한 대표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기관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신뢰받는 구청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행정협약은 동대문구 개청 이래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과 함께 헌법에서 지향하는 입법·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첫 번째 행정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관내 공공기관의 위치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설명)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장안교와 신설동 축선을 기준으로 동대문을 남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공공시설의 배치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의 불균형은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말하고 강북의 소외를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 구 안에서의 불균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무려 37개소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중 25개소가 동대문 '갑'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동대문에 '상전벽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10년 앞을 내다보고 균형 잡힌 공공시설의 확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절반의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구용역은 과업을 요구하는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미래비전이 수립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실행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가 사업도 대신해 줍니까? 그래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방향성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대문의 균형발전과 중·장기 지역 발전상을 제시하는 '균형발전TF팀' 우선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곧 동대문의 10년, 나아가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대표적인 청년도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구의 2030세대 인구는 105,000여명으로 전체 대비 31%에 달합니다. 사실상 3명 중 1명은 청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비교해도 26,000여명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정책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청년은 일자리정책의 결가지로 존재할 뿐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부서 하나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1조 583억원입니다. 이중 청년을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6개 사업, 19억원 수준으로 세입 결산액 대비 0.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시책들도 대부분 일자리 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의 측면에서도 국가나 서울시 보조금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수동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청년은 정치적인 화두로만 존재할 뿐 구정 어디에서도 청년을 위한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총 인구의 3분의 1이 청년임에도 공공이 주관하는 행사와 주민자치 현장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무엇 하나 매력을 느끼지 못한 청년들은 동대문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완성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정책의 목표도, 방향도 애매하다보니 청년일자리, 청년의제 발굴과 같은 사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본 의원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미 각 정부부처는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청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지역 사정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아야 할 것입

니다. 또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에 청년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과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큰 틀의 구상을 수립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청년문화 활성화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청년정책은 고용 위주의 일자리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주근접의 생활권을 조성하고 청년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청년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투자가 곧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청년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성영 의원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4만 동대문 구민께서는 제8대 민선구청장에게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올바른 인사를 통해서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만 구민은 우리 19명의 구의원에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올바른 인사를 감시 견제하라는 임무와 권한을 주었습니다. 래서 우리 동대문구 19명의 구의원께서는 지역의 민원 말씀을 듣고 잘못된 행정, 불편한 행정을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 관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것은 동대문 구민을 위한 것이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러한 것은 우리 동대문구 19명의 모든 구의원은 이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무슨 떡고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지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번에 제316회 동대문구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와 2021년 결산을 하고 추경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인터넷에 회의록 내용이 게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해당사자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에서 한 말들을 듣고 항의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전임 구청장이 동대문구의회를 무시하는 전례이고 관례입니까? 앞으로 민선 8기 이필형 구청장께서는 이필형 구청장의 관례로 올바른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회의록도 게재가 안 되고 배포가 안 됐는데 구의원이 한 발언이 이해당사자가 구의원한테 항의전화를 오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동대문구청으로 들어와서 일 하시게 된 어찌다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동대문구청에서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이 진급해서 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대문구를 더 발전시키고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께서는 공무원에게도, 동대문 구민에게도 잘못된 행동과 언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대문구청장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동대문구청장을 보필하셔서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 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동대문구청 간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일반인에게 욕먹고 함부로 허위사실로 무고로 한 행동을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고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과 동대문구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앞으로는 동대문구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고 막말을 하는 민간인을 자제시키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서윤 의원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우리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운영방안 개선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계획을 게시하고 영업일 기준 5일 이상의 견적서 등록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발주계획과 품목, 수량이 명시된 과업지시 내용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맞지 않게 게시한 담당자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나 여기 계신 국·과장들께서 지속적으로 두루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게시판 모니터링과 계약추적을 통해서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공고를 게시하지않고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과와 해당 용역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과 통화하신 해당 과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쟁입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입찰은 추정가격 1억 미만은 10일, 1억 이상 10억 미만은 20일, 10억 이상은 40일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용역을 포함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한 용역 입찰공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지 재무과에 문의했습니다.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긴급히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구의 모든 사업은 항상 긴급하게 발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긴급 사유가 있었다면 다음 해에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매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왜 따르지 않는 겁니까? 계속해서 주시할 겁니다. 행정감사, 결산심의에서도 과별 사업들의 계약발주를 추적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계속 해왔던 업체가 편해서, 직전 담당자나 옆 부서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런

게 알음알음 계약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의계약뿐 아니라 경쟁입찰의 긴급공고 또한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을 겁니다. 잘못된 관행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더욱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공공기관과 계약해 보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매 뉴얼을 배포해 주십시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게시하시고, 제안서 평가 또한 조달청에 위임하십시오. 단 한 번의 5분발언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추적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용역이 될 것입니다. 단일 업체가 참여했는데 재공고는 진행되지 않았고 적격심사에서 60점 만점에 40.75점이라는 배점한도 기준 60%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계약지침은 법 위에 있습니까? 왜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많은 준비 부탁드립니다. 정서윤의원은 왜 이렇게 계약에 집착하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대문구,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합리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동대문구, 그 무엇보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동대문구가 되길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 의원은 동대문 구민께서,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저의 카페 회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법퍼에서 밥을 못 쏜다고 중앙언론, 신문, TV, 지방지 인터뷰를 하면서 수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법퍼의 배식을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법퍼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법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였고 불법건축물을 처리해 달라는 동대문구 행정에 불법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구청장도 안 했던 이행강제금을 이필형 구청장 취임하고 물렸습니 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물렸습니 다. 그런데 밥퍼 측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청이 어려운 분들께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밥퍼에서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는 거 저도 존경하고 찬성합 니 다. 그렇지만 지난 35년간 저희 지역 전농동·답십리에서 밥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어 온 지 역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동대문구는 혁신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용 두동이 변하고 과거 창녀촌이었던 588이 변하고 있습니다. 65층 고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굴다리 쪽으로 용두동에 사는 어린이들이, 전농동 588 지번에 사는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아침부터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 응 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구청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 르고 묵인하고 불법으로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밥퍼를 지적하는 겁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밥 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복지를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꾸고 있습 니 다. 이필형 구청장도, 본 의원도 밥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경기도에서 동 대문구로 식사하러 오게 하지 말고 밥차를 가지고 찾아가는 밥차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동대문구청 홍보팀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올바른 행 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께 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지면이나 방송에 보내시어 우리 동대문구청이 불법 행정을, 불법 건축물 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홍보해 주십시오. 또다시 동대문구에서 이태원의 불법 건축물처럼 그런 사건이 안 나오도록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민선8기 출범으로 새로운 비전을 담아 BI, CI,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듯하여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다른 자치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설명) 구로구입니다. 디지털 구로에서 스마트 구로로 가시성이 개선된 슬로건으로 변화했습니다. 양천구입니다.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광진구입니다. 캘리그래피 서체를 탈피하고 트렌디한 감각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봉구입니다. 마치 음표를 상징하는 듯하며 색상의 변화로 리듬감을 주었습니다. 종로구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감각적인 조화, 개인적으로 가장 우수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입니다. 구로구, 광진구와 마찬가지로 캘리그래피 서체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변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꿈을 여는’이라는 단어가 ‘행복을 여는’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또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지도 않은 동대문을 형상화한 CI는 그대로 차용하고 색상만 바뀌었습니다. 동대문구 서체도 색상만 바뀌었습니다. 한문, 영문도 색상만 바뀌었습니다. 영문은 새 슬로건이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니다. 우리 구는 이렇게 문구 하나와 색상을 바꾸기 위해 디자인 용역으로만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2,000만원이 끝이 아닙니다. 깊은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성급한 CI, BI 교체로 현판, 각 동주민센터 간판, 차량 랩핑, 입체 상징조형물, 기타 사이니지 등을 교체하는데 수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구의 브랜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필요하다면, 수억원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문구 하나 바꾸고 색상 변경하는데 디자인용역비로만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잠시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벌써 이렇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과 주민들이 ‘동대문’을 ‘동대문구’로 바꿔 달라고 한 타당한 건의는 반영하지도 않고 휘장 색상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행정구역에 없는 동대문에 집착하실 겁니까? 우리 구가 명칭을 바꿀 수 없다

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DDM이라는 우리 구 대표 이니셜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꽃의도시 선포식에서 소개된 엠블럼입니다. 동대문구의 대표 이니셜 'D'를 형상화해서 꽃의도시 동대문구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디자인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업체가 전문디자이너가 이렇게 바꾸자고 먼저 제안했다면 그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반납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과업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 못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구청장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평등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시도 슬로건 하나 바꾸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마포구,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십니까? 지난 317회 정례회에서 한 공무원으로부터 본 의원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초보운전이 왜 운전을 천천히 하는지 아냐고,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하십시오. 구청장님, 본 의원과 같은 초선 아닙니까? 본 의원과 같이 천천히, 합리적으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하십시오. 구청장께서 급하게 서두르면 본 의원도 그 속도에 맞출 것이고, 구청장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시면 본 의원도 앞장서서 구청장을 지지하겠습니다.

안 태 민 의원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2019년 4월 착공해 12월 2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와 특별교부금, 구비 등 총 52억 8,0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말을 바꿔 30억원이 늘어난 총 8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석면철거 및 시설물 구조보강, 지하2층에서 옥탑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옥상 휴게공간 조성, 수영장 및 탈의실 공조시설 개선, 현대적 인테리어 등의 시설로 주민들이 쾌

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2019년 12월 26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작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6월경에는 옥상 누수로 비가 새서공단직원들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방수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대로 높이를 오히려 낮춰놨습니다. 이 잘못된 시공으로 수영장과 탈의실은 습기가 가득차게 되고 환기를 시키는 공조시설은 용량이 모자라 수영장 탈의실은 물방울이 맺혀 떨어졌으며 습기로 인한 누전 때문에 전기가 나간적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백 명이 사용하는 샤워장의 온수보일러로는 가정용 온수기를 설치하여 샤워 도중에 갑자기 찬물이 나오는 등 주민들 항의가 이어지자 작년에 수천만원을 들여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방문한 3월 20일 오후 2시경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모습입니다. 단열재가 덜 들어간 헬스장 벽은 결로로 인해 마룻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으며 전기 누전 때문에 일부 기계 장치와 전기 콘센트 등은 사용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월세 80억원을 낭비했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헬스장 회원수가 약 400명이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월 1,8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헬스장 회원은 월 42,000원, 수영장은 성인 기준으로 주 5회에 69,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체육관 한 달 회비를 3만원 받는 데가 있으니 결코 싼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방문한 지난 3월 20일은 날씨가 따뜻하여 체육센터 헬스장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헬스장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헬스장 유리벽에 가까울수록 곰팡이 냄새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추위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던 겨울철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 구와 공단은 이런 사실들을 보고 받거나 파악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불편함을 무시한 겁니까? 2023년 정례회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조기 등 환기시설 보강, 헬스장 벽체의 단열재 보강 및 환풍기 설치, 습기로 뒤뜰린 수영장 락커 교체 등의 구민체육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80억원의 월세가 투입되어 2019년에 준공식을 가진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잘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종 의원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번영을 이끌어갈 교통 백년대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대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대문구 전역에 걸친 재개발·재건축,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철도망 구축과 함께 동대문구의 상전벽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하나씩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본 의원 생각에 동대문구를 가로지르는 경원선, 경의중앙선 등 지상철도의 지하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철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문제로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같은 행정동에서 50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20분에 걸쳐 돌아가는 게 일상이고 마음 편히 탈 수 있는 버스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상철 인근의 극심한 소음은 그저 적응하는 방법 외에 대책이 없고 지역 간 단절은 우리 구 주요 도로의 통행 여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문로가 대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차로 한 차선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내버스와 공사 차량, 일반 차량이 뒤엉켜 교통대란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문로 일대 도시 정비로 10,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교통량 분산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지상철로 인한 지역 단절로 우회도로 하나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장내 교통 상황에 대한 일말의 고민 없이 도시계획을 말 그대로 영혼 없이 설계한 결과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법은 지상철도의 지하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재설계는 동대문구 환골탈태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선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나 결국 공수표에 그치고 더 이상 정치적인 구호로만 난무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된 시행방안을 서울시민께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말로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동대문구 번영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부

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에 그리고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교통 백년대계는 지상철도 지하화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토박이도 모르는 회기역 옥상 주차장, 명색에 주민지원시설이나 늘 비어 있는 이문차량기지 주차장,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노후 역사, 이제는 서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철길 건널목, 토끼굴까지 우리 지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관련 자치법규도 문제입니다. 동대문구는 관할 지역에서의 철도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제정한 이 조례는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강북 횡단선, 청량리역 환승센터 같은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이른바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회의도 개최한 적이 없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상철로 인한 지역 단절, 기형적인 도시 설계와 만성적인 도로 정체, 철도 소음, 노후 역사, 철도망 확충 등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일하는 집행부,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대문구의 미래가 수사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뚜렷한 비전과 실행 전략으로 동대문구의 교통 백년대계를 내일의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관 사무의 한계에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대문구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지역의 새 시대를 완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 남 규 의원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예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1호 의안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날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으로 신뢰받는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인사청문회 실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이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인사 관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왔는데 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포함해 이미 여러 의원께서 한 목소리로 지적해 주셨지만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기관장 임명에서 제 식구 챙기기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모 실장의 막말과 갑질 논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의 임명까지 낫뜨거운 인사 행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현행 집행부의 인사는 ‘망할 망’자 ‘망사(亡事)’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가 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입니까? 구청장은 과거 당선 인터뷰에서 본인을 시스템론자라고 소개하셨던데 구청장의 시스템에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인사청문제도를 반대하는 구청장의 황당한 논리는 또 있습니다. 모 방송에서 구청장은 인사청문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갈라치기와 편가르기 같은 부정적 역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갈라치기이고 편가르기입니까? 기관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어떻게 주민을 갈라치는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는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분열의 온상입니까? 반대로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낙하산으로 자기 사람부터 챙기는 인사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편가르기 아닙니까?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실패, 정책 실패를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임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갈라치기가 아닌 주민 통합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월 2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분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병합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다가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상위법이 정비되었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74년 만에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침내 주민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입법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행부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놓고 갈라치기, 편가르기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단체장의 인사 전행을 제아무리 합리적 인사, 공정한 인사로 포장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 문화 정착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결코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동료의원 분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집행부 산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은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제는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첫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등용, 둘째, 집행부 산하 기관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 셋째, 임명권자의 임명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마지막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적극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금 동대문구민께서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동대문구 '의회에 바란다', 그리고 본 의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점상 문제, 또 하나가 용두동 수산시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청하고 동대문구 의회가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하는 동대문구를 만들자고 이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용두동 수산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냉동된 수산물을 녹여서 배를 가르고 핏물이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악취가 풍깁니다. 가보시면 거리에 아이스박스가 쌓이고 악취가 납니다. 그 옆에 '수자인', '해링턴'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많은 민원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청소과에서, 치수과에서 철저한 단속과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 문제입니다. 저는 가로정비 자문단에 들어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노력은 진짜 많이 합니다. '이창일' 과장부터 직원들 많은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민은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 위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안전한 보행 폭은 1.5m라고 합니다.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에서는 생계를 위한 노점상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측과 합의해서 시장 안으로 같이 영업할 수 있게 확보를 해주고 주차장 건립을 해주십시오. 주차장에 노점상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인도에 있는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동대문구민께, 서울 시민께 통행을 하는 우리 구민께 안전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환경미화원 공무원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합니다. 아침에 청소 끝내고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인도에,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치우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려서 인도로, 차도로 갑니다. 도로변에 청소, 환경정리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계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물차가 물청소 하고 흡수차량이 흡수

하고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제대로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적치된 쓰레기 봉투, 쓰레기 노인 일자리 줍시다. 환경미화원 공무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줍시다. 필요할 때마다 일 할 수 있도록 근무개선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간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동대문구는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민원을 해결하는 동대문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대문 구민이 민원을 넣기 전에 미리 알아서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 의원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용신동에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안전성 확보 대책과 재개발 사업과 향후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용두동 수산물 도매시장은 '79년도 소규모로 형성되어 이제는 110개의 점포로 성장해 43년간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서 주민분들의 식탁에 식재료가 되어 왔습니다. 그늘막 시설로 인해 상인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안전과 열악한 시설 환경에 대해 과연 동대문구는 알고 있으십니까? 재개발이 진행될 구역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다소 소홀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pt자료를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pt자료)첫 번째로 경동시장과 수산물시장은 현저하게 시설 차이가 있습니다. 튼튼한 재료로 그늘막을 시공한 경동시장과 다르게 용두수산물시장의 그늘막은 파손되기 쉬운 얇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한눈에 보기에 심하게 녹슬어 있으며, 기둥끼리의 접합 부분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위태위태해 보이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치 후 집행부는 안전도 검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폭우와 폭풍이 언제 몰아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설치 당시에 전반적인 시설 상태 확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

을 상인분들에게 버텨달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있어 머지않아 철거될 예정이지만 단 하루만 영업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은 안전한 곳에서 영업할 권리가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안일한 행정으로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전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불감증으로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행정기관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함으로 구민의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선제적으로 세세하게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용두수산물시장 그늘막 시설의 관리, 교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두수산물시장 상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장 자체를 소멸하느냐, 대체 부지로 이주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명확한 대책이 없이 상인들은 영업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로 회한과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구청이 아니라 SH 사업체라고 하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시행사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구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최대한 보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시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성운 의원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취업 및 창업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직장인과 기업인을 위한 동대문구의 자체 정책예산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취업과 창업 준비생,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다수 있지만 이미 취업한 청년

과 동대문구에서 기업을 일궈가고 있는 청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취업과 창업, 청년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대문구에 청년 기업들이 뿌리내려 지역 발전 또한 견인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비롯해 집행부에서 취업 청년의 일자리 유지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청년이 각자의 일터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의 특화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2명 중 1명이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40%의 청년들은 고용불안과 우울감에도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기업들이 꽃도 피보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기업의 폐업률이 전 연령 평균보다 6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청년층의 기업 생존 기간이 2에서 3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짧았고 중소 벤처기업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의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78.1%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창업정책이 초기에 집중되는 것을 넘어서 3에서 7년 차에 겪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역시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제정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와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동대문구 세입 결산액을 보면 청년을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6개 사업, 19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청년 관련 시책 대부분이 일자리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도 국비와 서울시 보조금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수동적인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써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금까지 청년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존하는 청년기업들의 폐업을 막고 단계적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동대문구로 유입되는 청년들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대문구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동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전입한 청년, 미취업 청년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듯이 이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청년과 어렵게 취업한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힘들게 창업한 청년들이 활로를 찾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층이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들 청년이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결혼하고 아이도 낳게 되며 국가 최대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및 창업 청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관심과 지원 노력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우리 구 창업지원사업인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사업의 참가자 모집과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노하우를 합쳐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10개 팀을 모집하는 이 사업의 경쟁률은 약 일대 일 정도였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하셨지만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다른 창업지원 사업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성과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이 사업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 자치구나 타 부처 대비 지원금액이 적고 이미 창업교육과 컨설팅은 무수히 많은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사례는 차치하고 시·군·구 기준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1개 기업당 최대지원 금액입니다. 관악구 최대 5,000만원, 익산시 4,500만원, 성남시 3,000만원, 송파구·서초구 2,000만원, 시흥시 1,500만원, 구로구·영등포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치구 중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관악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관악구는 2020년 낙성벤처벨리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관악구가 5억을 출자하고 전문 투자운용사를 선정해서 관악구 내 기업에게 최소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운용 방식으로 2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외 강남구도 10억을 출자하여 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530억 가량의 출자약정액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관악구, 강남구 외에도 중랑구, 성동구, 구로구에서 벤처 펀드 관련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 펀드 조성 외에도 창업 부문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창업지원센터 내 VC 기관과 컨설팅 전문회사 유치 방안, 사회적경제 창업육성기관 운영공모 유치 기반 조성, 혁신적인 창업공간 기획 등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창업 펀드 위주로 내용을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정인, 김용호, 장성운의원과의 함께 재

정경제국과 해당 과를 만나 위와 같은 창업 펀드 조성 and 실질적인 창업지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실무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누시어 동대문구 관내 우수한 창업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 구민을 위한 지방의원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큰 폐를 끼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2주간 3개 대학 학생회 여러분과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본 의원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동대문구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주목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일을 거름 삼아 더 큰 성장 기회를 마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노연우 의원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독서실의 존재는 단순한 이용률이나 적자 등 수치가 아니라 가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부 환경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2021년 KBS와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고졸로 학업을 마치는 비율이 고소득층 청소년들보다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공부방이 따로 없거나 생계 걱정에 카페에 가는 비용까지 아껴야 하는 등 공부에 전념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동대문구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효율성 추구, 구민의

목소리 묵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탁상행정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10개의 청소년 독서실 중 4개가 폐관되었고 6월에 용두청소년 독서실이 폐관될 예정입니다. 폐관 결정 과정은 집행부의 효율성과 독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소년 독서실은 집행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율성 또한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독서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전까진 평균 80%의 이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용률이 20~40%까지 떨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작년부터는 이용자가 다시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청소년 독서실 폐지 반대 민원이 23건이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가 묵살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 번 없는 일방적인 폐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내 집과 같았던 공부 장소를 잃었다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진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카페나 스터디카페는 너무 비싸요” 존경하는 이팔형 구청장님! 청소년 독서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겐 절실한 공간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이라는 공부방을 잃은 학생들은 인근 도서관으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했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서관은 청소년 독서실에 비해 집중이 어렵고 거리가 멀어서 가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확실한 정책 목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 회의록 전체를 분석해본 결과 집행부는 청소년 독서실 폐지를 신중하게 고민한다고 했다가 폐지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하며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제316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 독서실 폐관 시 청소년들을 위한 AI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놀이공간이 아닌 집행부를 위한 공간, 각종 협의회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천구·중랑구·영등포구 등은 청소년들을 위해 독서실을 스터디카페로 새단장하고, 마포구는 낮에는 도서관, 밤에는 독서실로 운영하며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독서실이 폐관된다고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구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습 격차는 날로 커져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삶의 격차까지 감수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기회의 공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독서실 존폐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과 재고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이며, 본회의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16회 정례회부터 제321회 정례회까지 소관부서별로 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 위 원 장 : 이강숙 의원
- ▶ 부위원장 : 정서윤, 성해란 의원
- ▶ 위 원 : 김용호, 노연우, 안태민, 이규서 의원

주요처리안건

- ▶ 제315회 임시회~제32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
- ▶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
- ▶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선진정책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 ▶ 동대문구 문화관광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심의의 건
- ▶ 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
- ▶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 ▶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 선진정책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변경의 건
- ▶ 동대문구 녹지공간 조성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 위 원 장 : 손세영 의원
- ▶ 부위원장 : 김용호, 이규서 의원
- ▶ 위 원 : 정성영, 최영숙, 박남규, 김세종, 정서윤, 성해란 의원

주요처리안건

-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교육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창업지원 조례안
- ▶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 ▶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 ▶ 2023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구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 ▶ 구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파악 철저
- ▶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및 후속조치 보고 철저
- ▶ 옴부즈만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 선정 및 선정 대상의 다변화
- ▶ 구민감사관 선정 시 적합성 및 공정성 확보 철저 등
- ▶ 구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적정
- ▶ SNS 등 각종 홍보매체 운영의 질적 향상 방안 강구
- ▶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개선 방안 강구
- ▶ 언론 간담회 등 對언론 업무 관행타파 및 성과목표 재설정
- ▶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
- ▶ 임차청사 운영 지양 및 구유재산 활용방안 강구
- ▶ 인사기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강구
- ▶ 청풍유스호스텔 해법 마련 촉구
- ▶ 취약계층 대상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강구
- ▶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내실화 방안 강구
- ▶ 주민자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
- ▶ 관내 직능단체 예산배분 및 정산 철저 등
- ▶ 동청사 건립 시 충분한 협의 필요 등
- ▶ 자율방범대 처우 개선 및 공간확보 방안 강구
- ▶ CCTV 확충, 관제능력 제고 및 보안을 위한 투자 철저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 ▶ 동별 주민숙원사업 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 철저
- ▶ 세계거리축축제 개최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 강구
-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감사 요청
- ▶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정상화 및 관리 감독 철저
- ▶ 구립합창단 활성화 방안 강구
- ▶ 월하홍릉 등 지역축제 홍보 철저
- ▶ 동대문구 문화도시 지정 노력 촉구
- ▶ 체육단체 각 종목별 지원금 지급기준 정비
- ▶ 중랑천 수영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 ▶ 동대문구체육관의 균등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 구민 체육활동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촉구
- ▶ 배봉산 야외수영장 이용주민 편의 개선
- ▶ 대학생 학습멘토링사업 활성화 필요
- ▶ 동대문구 장학금 선정기준의 탄력적 운용 필요
- ▶ 급식비 지원금 확대 방안 강구
- ▶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업의 타부서 이관 검토
- ▶ 민원실 픽토그램(그림문자) 도입을 통한 구민 행정편의 제고
- ▶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방법 개선 검토
- ▶ 성인지예산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및 관리 철저
- ▶ 구유재산 대토보상 활용 검토
- ▶ 수의계약 게시판 운영 개편 및 투명성 제고
- ▶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 ▶ 도시텃밭 사후관리 철저
- ▶ 반려견 놀이터 관리 감독 철저

- ▶ 동대문구 상권 육성 매니저 지원방안 검토
- ▶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쇼핑몰 활성화 방안 검토
- ▶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방안 강구
- ▶ 중·장년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검토
- ▶ 청년창업공간 추진 철저 및 수요를 반영한 청년 인프라 확충
- ▶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등
- ▶ 對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활성화 필요
- ▶ 구민 건강수준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홍보 강화
- ▶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내실화
- ▶ 자살률 감소대책 추진 철저
- ▶ 마음검진 무인 키오스크 위치 재검토
- ▶ 의료기관 진정민원 감소 노력 촉구
-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철저
- ▶ 산후조리원 시설점검 철저
- ▶ 저소득층 대상 산후조리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 위생교육 미이수율 감소방안 강구
- ▶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원의 전문성 강화
- ▶ 집단급식소 점검 결과 내역의 정확한 표기 필요
- ▶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 ▶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및 지출내역 관리방안 개선
- ▶ 구민회관 입주단체 사무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 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
- ▶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문제점 개선 및 휴일 이용방안 강구
- ▶ 휴일 시간외근무수당 산입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권고사항)
-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내실화 필요(권고사항)
- ▶ 동대문문화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이전 추진(권고사항)
- ▶ 학교 급식실 조리사 처우 개선 필요(권고사항)
- ▶ 구정연구단 등 전문가 참여 TF 운영 검토(권고사항)
- ▶ 동대문구 균형발전 촉구(권고사항)
-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권고사항)
- ▶ 건강이동진료버스의 조속한 재개 촉구(권고사항)
-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 시설 확충 필요(권고사항)
- ▶ 답십리 1동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권고사항)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복지국,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 위 원 장 : 한지엽 의원
- ▶ 부위원장 : 노연우, 안태민 의원
- ▶ 위 원 : 이강숙, 김창규, 김학두, 서정인, 이재선, 장성운 의원

주요처리안건

- ▶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동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 보조사업 수행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 ▶ 소관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 관리 감독 철저
- ▶ 푸드뱅크·마켓 운영 방법 등 대책 강구
- ▶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지도·감독 철저
- ▶ 어린이집 지도·감독 철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 ▶ 용두문화복지센터 홍보 및 운영 철저
- ▶ 유사성격 위원회 통·폐합 운영 검토
- ▶ 구립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강구
-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및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 관리 철저
- ▶ 생활안전보험서비스 가입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구민 홍보 방안 강구
-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관리감독 철저
- ▶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판매업소 지도감독 철저
- ▶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지도감독 철저
- ▶ 공사장(재건축·재개발 등) 내 소음·분진 등 민원해결 대책 강구
-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강화
- ▶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 철저
- ▶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사업 관리 감독 철저
- ▶ 위법 건축물 관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관리 감독 철저
- ▶ 중랑천 장미정원 유지 관리 철저
- ▶ 용신동 풍물시장 일대 단속 강화
- ▶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 관리·감독 철저
- ▶ 공사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강구
- ▶ 이문로에서 시조사삼거리 도로 확장 방안 마련
- ▶ 망우로 61 웨딩헤너스 보도 시정조치
- ▶ 스마트 쉼터 및 마을버스 도착알림 서비스 설치 추진 철저
- ▶ 이문동 공영주차장 및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원안 추진
-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철저
- ▶ 훼손된 휠체어 교체 및 서고 관리 등 추진 철저[전농1동]
- ▶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금 상향 방안 마련(권고사항)
- ▶ 동희망복지위원회 동별 특화사업 발굴 및 방안 마련(권고사항)
- ▶ 휘경·이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선호시설 방안 마련(권고사항)
- ▶ 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 강구(권고사항)
- ▶ 공동육아시설 확대 운영 방안 마련(권고사항)
- ▶ 구립 청소년독서실 폐관 관련 개선 요구(권고사항)
-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권고사항)
- ▶ 빅데이터 운영 확대(권고사항)
- ▶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대책 마련(권고사항)
- ▶ 개방형 화장실 물품 등 지원방안 강구(권고사항)
-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제한(권고사항)
- ▶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개발 추진 철저(권고사항)
- ▶ 재개발 추진 관련(권고사항)
- ▶ 중랑천 북카페 관리 및 청결에 만전(권고사항)
- ▶ 대부료·점용료 부과 방법 개선 건의(권고사항)
- ▶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확보 추진(권고사항)



특별위원회 활동



여러 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2022년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위 원 장 : 김세종 의원
- ▶ 부위원장 : 안태민, 김용호 의원
- ▶ 위 원 : 이강숙, 박남규, 노연우, 성해란 의원

주요처리안건

-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위 원 장 : 장성운 의원
- ▶ 부위원장 : 서정인, 최영숙 의원
- ▶ 위 원 : 정성영, 김창규, 이재선, 노연우, 안태민, 정서윤 의원

주요처리안건

- ▶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 7. 1.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등원식



2022. 7. 15. 제9대 동대문구의회 개원식

의정갤러리

• 제315회 임시회 주요시설 현장방문



2022. 7. 19.
[태양하나어린이집]



2022. 7. 19.
[창업지원센터]



2022. 7. 19.
[동대문구 노인지회]



2022. 7. 19.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2023. 1. 13. 제9대 동대문구의회 신년인사회



2023. 2. 13. 몽골 바양걸구의회 방문단 접견

의정갤러리

• 제319회 임시회 주요시설 현장방문



2023. 3. 27.
[환경자원센터]



2023. 3. 27.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



2023. 3. 27.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2023. 5. 2. 서울시구의회 체육대회

제9대 전반기 연구모임 활동



• 선진정책 연구모임



2023. 3. 2. 발족식



2023. 4. 2. 서울창업허브 성수 · KT&G 상상플래닛 방문



2023. 6. 7. 중간보고회

제9대 전반기 연구모임 활동

• 문화관광 발전방안 연구모임



2023. 3. 6.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방문



2023. 3. 13. 선농단역사문화관



2023. 6. 8. 중간보고회



• 녹지공간조성 연구모임



2023. 3. 20. 발족식



2023. 4. 6. 안면도수목원 방문



2023. 6. 7. 중간보고회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보제원 제향의례

이태인 의장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청각 장애인 이불 나눔 행사



참전용사 초청 나눔 행사



당선증 교부식



봄꽃 축제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정성영 부의장



제31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선농대제



청소년의 밤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우리동네 키움센터 7호점 방문

이강숙 운영위원장 비례대표



재320회 운영위원회



경희대 캠퍼스타운 간담회



회기동 주민소통회



당선증 교부식



제기동 척사대회

제기동, 청량리동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제31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청량리동 주민소통회



한방문화축제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보제원 제향의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제기동, 청량리동



제320회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위 주요시설 현장방문



한마을 걷기의 날



당선증 교부식



동대문구민의날 행사

이문1동, 이문2동

김창규 의원



제3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문2동 척사대회



선농대제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이문2동 주민소통회

김학두 의원

이문1동, 이문2동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청량리동 행정사무감사



이문2동 척사대회



당선증 교부식



용신동 한마음 축제

용신동

서정인 의원



제3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전농1동 행정사무감사



선농대제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용신동 척사대회

최영숙 의원

용신동



제31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벚꽃축제



유니콘 청년창업센터 현장방문



당선증 교부식



휘경1동 주민소통회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

박남규 의원



제32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휘경동 청년지원센터 현장방문



경희대 캠퍼스타운 간담회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외대역 교통편의 증진사업 준공식

김세종 의원

회기동, 회경1동, 회경2동



제32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봄꽃축제



선농대제



당선증 교부식



경동시장 현장방문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김용호 의원



제320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봄꽃축제



선농대제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우리동네 키움센터 7호점 방문

이재선 의원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제32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기동 행정사무감사



재향군인 위령제



당선증 교부식



배봉산 걷기대회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장성운 의원



제320회 행정기획위원회



세계거리 춤축제



답십리2동 행정사무감사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노인지회 정기총회

노연우 의원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제3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우리동네 키움센터7호점 방문



도시농업 텃밭가꾸기



당선증 교부식



녹지공간 조성 연구모임 발족식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안태민 의원



제320회 복지건설위원회



구민체육센터 방문



회경2동 행정사무감사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답십리2동 주민소통회

이규서 의원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재31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농업 텃밭가꾸기



선농대제



당선증 교부식



장안2동 우리마을 문화제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정서윤 의원



제31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장안2동 주민소통회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 간담회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당선증 교부식



이문2동 척사대회

성해란 의원

비례대표



제320회 행정기획위원회



휘경1동 주민소통회



문화관광 연구모임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방문

연락처 및 오시는 길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TEL : 02)2127-5497, 5439~40 FAX : 02)3299-2611



2호선 용두역 3번출구
 1호선 제기역 3번출구에서 하차 하신 후 도보로 10분거리



- ※참고 장안동, 답십리동, 전농동에서 오시는 분은
 - 파랑(간선)버스 : 130, 303, 370, 145, 721
 - 초록(지선)버스 : 1227, 2015, 2112
 - 빨강(광역)버스 : 9403, 9301 을 타고 구청앞에서 하차
- ※참고 용신동에서 오시는 분은
 - 파랑(간선)버스 : 303, 370, 721
 - 초록(지선)버스 : 421
 - 빨강(광역)버스 : 9403 을 타고 구청 맞은편에서 하차
- ※참고 이문동, 휘경동, 청량리에서 오시는 분은
 - 파랑(간선)버스 : 105, 202, 147, 201, 260, 261, 270, 271, 272, 720, 420
 - 초록(지선)버스 : 2221, 2233



열린의회

온라인의회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소개, 의정활동, 의회기능, 회의록 검색, 의회에 바란다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 검색은 물론, 동대문구의회의 대외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구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동대문구의회 PC 홈페이지 (<http://council.ddm.go.kr>)



▲ 모바일 홈페이지
(council.ddm.go.kr)

방청안내

동대문구의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신청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기 개최 전일 까지 인터넷 신청
※ 당일 신청의 경우 본회의 개최 전 방문신청서 작성

방청절차 방청신청(홈페이지)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방청문의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02-2127-5496)

찾아가는 의회 발로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

동대문의회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SEOUL METROPOLITAN CITY DONGDAEMUN-GU COUNCIL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